

질문지

총론 : 질문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예전과 비교해서 사고로 인해 달라진 점을 모두 말씀해주시면 된다.

1. 싸움 같은 게 예전보다 많이 일어나나? 가족 간(부부) 다툼과 이웃 간 다툼.
2. 교회나 어촌계의 도움을 받은 것이 있나?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았나? 동창회나 다른 마을 단체로부터?
터는?
3. 사고 발생의 책임은 어디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나?
4. 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5.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가? 정부가 나서야 하나?
6.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척 낮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좀 더 돌려서, 쉬운 예를 들어서. `지난번 SBS 뉴스추적 봤나? 태안의 현 모습이 제대로 반영된 것 같나? 석포는 왜 촬영하지 않았나?`)
7. 정부를 믿는다는 게 뭔가? 믿어야 한다는 것인가?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이 믿음직스러운가?
8. 경제적 문제를 누구와 상의했나? 그것은 왜 그랬나? 교회나 행정기관에는 왜 찾아가지 않았나?
9.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돈은 어디에서 벌고 있나? (이것도 좀 더 돌려서 표현해야 할 듯. 아이가 있는 집은,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지, 용돈을 줄이고 있는지. 대학생이 있는 집은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지 등)
10. 민박하는 사람과 양식만 하는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는 없나?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11. 건강 관련,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 사고 이후로 더해지는 건가? 방제활동을 나가셔서 그런 건지? 방제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가?
12. 2차 방제 인원 선정 과정에서 불공평하다고 느낀 점은 없었나?
13. 어르신과 젊은 분들의 차이. (주로 젊은 분들이 이런 큰 일에 나섰나? 어르신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나?)
14. 사고 이후 집과 일터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나? 남편분과 일을 구분하는 게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인가?
15. 혹시 친척에게 도움을 청해봤는가? 이때 도움은 아저씨가 청했나, 아주머니가 청했나?
16.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나?
17. 책임에도 차이가 있다. ① 에이 나쁜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라서 실망했다. ② 정말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망했다. 어떤 책임인가?
18. 이웃 마을 사람들과 잘 왕래하시고 그러시나? 그쪽 마을 사람들을 잘 아시나? 몇 명이나 아시나?
19. 사전에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느 정도 돼 있었나? (마을 전체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 작동했는가? 앞으로 어떤 예방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가?
20. 보상의 한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공공사업을 원하는 게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21. 앞으로 재해보험에 들 생각이 있나?
22. 설문조사 결과 저소득층 분들의 마을 애착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하신다면, 왜 그런 것 같은가?